『素問·藏氣法時論』의 五藏病의 日中 間甚 대한 考察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方正均*

對於『素問·藏氣法時論』的五藏病的日中間甚之考察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方正均

『素問·藏氣法時論』的五藏病之日中間甚的注釋中, 關於脾病與肺病靜的注釋, 可分以下三條. 其一是, 脾病靜, 當作日中靜, 肺病靜, 當作日昳靜. 其二是, 下晡與夜半, 制其賊邪, 所以病靜. 其三是, 資於子氣旺, 母氣亦旺.

論者以氣之傾向性解釋本文, 其內容如下. 其一是, 平旦與肝有同樣的氣之傾向性, 所以病爽. 下晡與肝有相反的氣之傾向性, 所以病甚. 夜半是補充肝之氣, 所以病靜. 其二是, 日中與心, 其機能有似, 所以病爽. 夜半與心, 有相反的氣流, 所以病甚. 平旦輔心的活動, 所以病靜. 其三是, 日昳與脾共有化的特性, 所以病爽. 日出與化, 有相反的氣之特性, 所以病甚. 下晡是收斂的時期, 有關與化的作用, 所以病靜. 其四是, 下晡與肺, 共有收斂的特性, 所以病爽. 日中有相反的氣流, 所以病甚. 夜半與金, 共有陰的氣流, 所以病靜. 其五是, 夜半與腎, 共有藏的機能, 所以病爽. 四季包容萬物, 與藏精微的腎, 有相反的特性, 所以病甚. 下晡有收斂肅殺機能, 輔腎之藏的機能, 所以病靜.

腎病甚的時期, 作四季而不作日昳, 這就說明了腎病的危重性.

關鍵詞 : 五藏病, 日中間甚, 下晡靜, 夜半靜, 四季

Ⅰ. 緖 論

얼마 전 미국에서는 또다시 우주왕복선인 디스커버리호를 쏘아 올렸다. 근자에 들어 세계 各國에서는 최첨단의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경쟁적으로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광대하고 신비로워 그 실체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우주에 대한 탐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우주에 대한 탐구는 한편으로는 생존을 위해 또는 궁금 점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 탐구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陰陽五行論도 이러한 지적 탐구의 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戰國시대에 정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陰陽五行論은 이후 동양 사상의 전반적인 면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한의학 사상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素問·藏氣法時論』의 내용도 陰陽五行論의 사상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특히 五藏의 生理·病理的 상황을 五行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 中 五藏病의 間甚에 있어 그 내용이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주석가들의 견해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또한 腎

* 交信著者 : 方正均,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033) 730-0666, bjkdcw@mail.sangji.ac.kr.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病의 경우 甚해지는 시각을 日昳이 아닌 四季로 표현한 것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 이에 논자는 역대 醫家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서, 아울러 논자의 견해를 밝혀 보고자 한다.

Ⅱ. 本 論

『素問·藏氣法時論』에서는 五藏의 病이 1년의 4계절과 天干을 기준으로 한 10일, 그리고 하루 中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 輕重이 달라짐을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4계절과 10일을 기준으로 한 질병의 輕重 변화는 일관되게 五行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五藏이 모두 동일한 원칙을 堅持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肝의 경우만 예를 들어 살펴보고 본 논문의 논지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病在肝, 愈於夏, 夏不愈, 甚於秋, 秋不死, 持於冬, 起於春, 禁當風. 肝病者, 愈在丙丁, 丙丁不愈, 加於庚辛, 庚辛不死, 持於壬癸, 起於甲乙.

(病이 肝에 있으면 여름에 낫게 되고, 여름에 낫지 않으면 가을에 심해지며, 가을에 죽지 않으면 겨울에 유지되다가 봄에 일어나게 되니 바람을 맞는 것을 禁해야 한다. 肝病에 걸린 사람은 丙丁日에 낫게 되고, 丙丁日에 낫지 않으면 庚辛日에 심해지고, 庚辛日에 죽지 않으면 壬癸日에 유지되다가 甲乙日에 일어나게 된다.)[1]

이상에서 제기한 肝病의 輕重은 다른 藏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즉 내가 生하는 계절과 날짜에는 病氣가 泄해지기 때문에 낫게 되고, 나를 克하는 계절과 날짜에는 병이 심해지며, 나를 生하는 계절과 날짜에는 나의 氣를 도와주므로 병이 심해지지 않고 유지되다가, 나의 氣와 같은 계절과 날짜에 병을 털고 일어난다는 것이다[2]. 이 같은 질병의 변화 양태는 하루 중의 시간 변화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용이 계절과 날짜에 따른 변화와 비교할 때 유사성을 띄고 있다. 다만, 하루라는 짧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의 間甚, 즉 慧·甚·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치유된다는 의미인 "愈"字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3]. 이와 같이 하루의 시간 변화에 따른 병의 慧·甚·靜의 변화가 대체로 계절과 날짜에 따른 질병의 변화 양태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脾病과 肺病의 경우와 같이 오행의 관계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肝病者, 平旦慧, 下晡甚, 夜半靜. …… 心病者, 日中慧, 夜半甚, 平旦靜. …… 脾病者, 日昳慧, 日出甚, 下晡靜. …… 肺病者, 下晡慧, 日中甚, 夜半靜. …… 腎病者, 夜半慧, 四季甚, 下晡靜.

(肝病은 平旦에 상쾌해져 낫는 것 같다가 下晡에 심해지고 夜半에 안정된다. …… 心病은 日中에 상쾌해져 낫는 것 같다가 夜半에 심해지고 平旦에 안정된다. …… 脾病은 日昳에 상쾌해져 낫는 것 같다가 日出에 심해지고 下晡에 안정된다. …… 肺病은 下晡에 상쾌해져 낫는 것 같다가 日中에 심해지고 夜半에 안정된다. …… 腎病은 夜半에 상쾌해져 낫는 것 같다가 四季에 심해지고 下晡에 안정된다.)[4]

이상에서 제기한 문장은 공통적으로 오장의

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社, 1981, 88쪽

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社, 1981, 88~89쪽
"病在肝, 愈於夏, 夏不愈, 甚於秋, 秋不死, 持於冬, 起於春, 禁當風. 肝病者, 愈在丙丁, 丙丁不愈, 加於庚辛, 庚辛不死, 持於壬癸, 起於甲乙. …… 病在心, 愈於長夏, 長夏不愈, 甚於冬, 冬不死, 持於春, 起於夏, 禁溫食熱衣. 心病者, 愈在戊己, 戊己不愈, 加於壬癸, 壬癸不死, 持於甲乙, 起於丙丁. ……病在脾, 愈在秋, 秋不愈, 甚於春, 春不死, 持於夏, 起於長夏, 禁溫食飽食, 濕地濡衣. 脾病者, 愈在庚辛, 庚辛不愈, 加於甲乙, 甲乙不死, 持於丙丁, 起於戊己. …… 病在肺, 愈於冬, 冬不愈, 甚於夏, 夏不死, 持於長夏, 起於秋, 禁寒飮食寒衣. 肺病者, 愈在壬癸, 壬癸不愈, 加於丙丁, 丙丁不死, 持於戊己, 起於庚辛. …… 病在腎, 愈在春, 春不愈, 甚於長夏, 長夏不死, 持於秋, 起於冬, 禁犯焠焠熱食, 溫炙衣. 腎病者, 愈在甲乙, 甲乙不愈, 甚於戊己, 戊己不死, 持於庚辛, 起於壬癸."

3) 胡天雄,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164쪽
"愈于夏者, 以四時爲期, 愈于丙丁者, 猶有十日之期, 一日之間爲時甚短, 只有間甚之時, 而不得謂之愈."

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社, 1981, 88~89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질병이 4계절과 10일의 기간에 輕重의 변화가 나타남을 설명하는 구절에 이어져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醫家들이 하루 中의 病의 間甚을 설명함에 있어 五行의 相生·相克 등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本藏의 五行 속성과 같은 시각에는 상쾌해지고 本藏을 克하는 시각에는 甚해지며 本藏을 生하는 시각에는 안정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脾病과 肺病이 안정되는 시각은 다른 藏에서 나타내고 있는 관계, 즉 本藏을 生하는 시각에 안정된다는 규칙성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각 주석가들의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또한 脾病과 肺病의 안정되는 시각이 다른 藏의 用例와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각 주석가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논자의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五行 配屬에 의거해 원문을 수정한 경우

五行 配屬에 의거해 원문을 수정한 것으로는 丹波元簡의 『素問識』가 이에 해당되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下晡靜, 簡按據前後文例, 當是云日中靜. …… 夜半靜, 簡按據前後文例, 當是云日昳靜.

((脾病의) 下晡靜은 내가 살펴보건대 前後의 文例를 근거로 할 때 마땅히 "日中靜"으로 해야 한다. …… (肺病의) 夜半靜은 내가 살펴보건대 前後의 文例를 근거로 할 때 마땅히 "日昳靜"으로 해야 한다.[5]

이상에서 보듯이 丹波元簡은 脾病과 肺病이 안정되는 시각에 대해 本藏을 生하는 시각인 日中과 日昳로 고쳐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다른 藏의 用例를 볼 때 일관성을 유지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五藏病의 間甚을 설명함에 있어 五行을 기계적으로 대입시킨 측면이 있다는 비판[6]을 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원문을 수정하지 않고 해석한 경우

1) 脈經

『脈經』에 기재된 하루 中 五藏病의 間甚과 관련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素問·藏氣法時論』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 다만 脾病의 경우 "病在脾, 日昳慧, 平旦甚, 日中持, 下晡靜."[7]이라고 하여 "日中持"라는 글귀가 첨가되어 있다. 이와 같은 文例는 4계절과 10일을 기준으로 五藏病의 輕重을 설명하면서 本藏을 生해주는 시기에 병이 심해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用例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丹波元簡이 지적하였듯이 이치적으로 타당한 듯하지만, 다른 藏의 文例와 비교해 볼 때 일관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8].

2) 王冰

王冰은 하루 中의 病의 間甚에 대해 4계절과 10일을 기준으로 五藏病의 輕重을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이해하면서 "休旺之義"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만 "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조금 다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脾病과 肺病의 안정되는 시각이 다른 藏과 비교할 때 五行 屬性이 다르게 배속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고, 다만 脾病의 경우 "金扶則靜退"라고만 설명하고 있다[9]. 이러한 王冰의 해석은

---

5) 丹波元簡, 『素問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44쪽

6)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匯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351쪽
"但是, 文中對五藏病證的發展變化, 只根據五行生克理論來推斷其愈, 甚, 持, 起, 推斷其間甚之時與死生之期, 未免有些機械."

7) 福州市人民醫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292쪽

8) 丹波元簡, 『素問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44쪽
"王注一本或云之說, 却似有理, 然經文其例不一. 往往有如此者, 姑仍舊注."

9)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318~321쪽
"木王之時, 故爽慧也, 金王之時, 故加甚也. 水王之時, 故靜退也. 餘慧甚同, 其靜小異. …… 亦休王之義也. …… 新校正云, 按甲乙經日出作平旦. 雖日出與平旦時等, 按前文言木王之時, 皆云平旦, 而不云日出, 蓋日出於冬夏之期有早晚, 不若平旦之爲得也. 土王則爽慧, 木剋則增甚, 金扶則靜退, 亦休王之義也. 一本或云日中持者, 謬也. 爰五藏之病, 皆以勝相加, 至其所生而愈, 至其所不勝而甚, 至於所生而持, 自得其位而起, 由是故皆有間甚之時, 死生之期也. …… 金王則慧, 水王則靜, 火王則甚.…… 水王則慧,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후대의 주석가들에게 영향을 미쳐,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王冰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3) 馬蒔

馬蒔는 王冰의 견해를 따르면서, 脾病에 있어 下哺에 病이 안정되는 이유를 金이 왕성해지면 脾를 克하는 木에 해당하는 기운을 물러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0]. 이는 王冰의 "金扶則靜退"라고 설명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金이 脾(土)를 붙잡아 준다는 것을 脾(土)를 克하는 기운인 木을 억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4) 吳崑

吳崑은 王冰과 馬蒔의 견해를 계승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만, 本藏을 克하는 시간을 賊邪로 표현하면서, 脾病과 肺病의 안정되는 시각에 대해 이 "賊邪"를 克하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脾病은 木에 해당되는 日出의 시각이 賊邪가 되는데 金에 해당되는 시각인 下哺에 木을 억제할 수 있고, 肺病은 火에 해당되는 日中이 賊邪가 되는데 水에 해당되는 시각인 夜半이 火를 억제하기 때문에 病이 안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1].

5) 張介賓

張介賓은 王冰 등 이전 주석가들의 견해를 따르면서, 脾病의 下哺靜에 대해서는 下哺의 시각이 "子鄕"이기 때문에 病이 안정된다고 하였고, 肺病의 夜半靜에 대해서는 "子能制邪"라고 설명하고 있다[12]. 즉 肺病의 夜半靜에 대해서는 吳崑과 마찬가지로 肺를 克하는 시각인 日中을 邪로 인식하고, 金의 子인 水에 해당되는 夜半에 水克火하여 邪를 억제하기 때문에 병이 안정된다고 하였다. 다만, 脾病의 下哺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한 채, "其子鄕"으로만 설명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즉 뒤에 이어지는 肺病에서 같은 용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金에 해당되는 시각인 下哺가 脾를 克하는 賊邪인 木氣를 억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子의 기운이 왕성해짐으로 인해 母의 氣에 도움을 주어 병이 안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6) 高士宗

高士宗의 본 문장에 대한 해석도 전반적으로 王冰 이하 여러 주석가들의 견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脾病의 下哺靜을 다른 藏의 文例와 비교할 때 다르다는 것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 이유를 子母의 氣가 왕성해지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肺病의 경우도 이 원칙하에 설명하고 있다[13]. 즉 脾病의 경우 子에 해당되는 金의 시각

土王則甚, 金王則靜."

10) 馬蒔 撰,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170~173쪽
"肝病者, 平旦慧, 以平旦應甲乙木, 故病主慧, 慧者爽也, 時旺木亦旺也. 下哺甚, 以下哺者申酉時也, 應在庚辛, 故病主甚, 金來克木也. 夜半靜, 以夜半者亥子時也, 應在壬癸, 故病主靜, 水來生木也. …… 心病者, 日中慧, 以日中正屬丙丁火也. 夜半甚, 以夜半正屬壬癸水也. 平旦靜, 以平旦正屬甲乙木也. …… 脾病者, 日昳慧, 以日昳則未土正旺, 土性耐也. 日出甚, 以日出則木旺也. 下晡靜, 以金旺則木退也. …… 肺病者, 下晡慧, 以下晡正屬庚辛金也. 日中甚, 以日中正屬丙丁火也. 夜半靜, 以夜半正屬壬癸水也. …… 腎病者, 夜半慧, 以夜半屬壬癸水也. 四季甚, 以四季屬土也. 下晡靜, 以下晡屬庚辛金也."

11) 吳崑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113~115쪽
"平旦, 寅卯也, 時當木旺, 故爽慧. 下晡, 申酉也, 時當金旺, 故甚. 夜半, 子也, 時爲母旺, 故靜. …… 日中, 午也, 時當火旺, 故爽慧. 夜半, 子也, 時當水旺, 水能勝火, 故甚. 平旦, 寅卯也, 時當木旺, 木爲火之母, 故靜. …… 日昳, 戌也, 時當土旺, 故爽慧. 日出, 寅卯也, 時當木旺, 木能克土, 故病甚. 下晡, 申酉也, 時當金旺, 能平其賊邪, 故靜. …… 下晡, 申酉也, 時當金旺, 故爽慧. 日中, 午也, 時當火旺, 火能克金, 故甚. 夜半, 子也, 時當水旺, 水能克火, 是制其賊邪也, 故靜. …… 夜半, 子也, 時當水旺, 故爽慧. 四季, 辰戌丑未야, 時當土旺, 土能克水, 故甚. 下晡, 申酉也, 試當金旺, 金能生水, 故靜."

12) 張介賓 編著, 『類經』, 서울, 一中社, 1980, 453~455쪽
"平旦寅卯, 木王時也, 故爽慧. 下晡申酉, 金之勝也, 故加甚. 夜半亥子, 木得生也, 故安靜. …… 日中巳午, 火王時也, 故慧. 夜半亥子, 水之勝也, 故甚. 平旦寅卯, 火得生也, 故靜. …… 日昳曰昳, 未土王也, 故慧. 日出寅卯, 木勝土也, 故甚. 下晡申酉, 其子鄕也, 故靜. …… 下晡金王, 故慧. 日中火勝之, 故甚. 夜半水鄕, 則子能制邪, 故靜. …… 夜半水王, 故慧. 四季土勝之, 故甚. 下晡金王, 水得所生, 故靜."

13) 高士宗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인 下晡에 金氣가 왕성해 짐으로 인해 母에 해당되는 脾의 기운도 왕성해져 병이 안정된다고 설명한 것이니, 肺病의 경우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루의 四時에 따른 五藏病의 間甚에 대해 대부분의 醫家들이 五行의 相生·相克 등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였고, 脾病과 肺病의 안정되는 시각에 대해서는 2가지 정도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醫家들은 下晡와 夜半의 시각이 脾와 肺를 克하는 시각인 日出[木]과 日中[火]을 억제할 수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病이 안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高士宗의 경우 子의 氣가 왕성해짐으로 인해 母의 氣도 왕성해져 病이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두 가지 설명 방법은 脾와 肺의 病이 안정되는 시간이 다른 藏의 용례와 다르게 됨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논자의 견해

논자는 이 문장의 원문 교정 여부에 대한 상반된 주장에 대해, 원문을 보존하는 주장을 따르되,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다른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肝病者, 平旦慧, 下晡甚, 夜半靜.

肝은 인체에서 升發과 發散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부이다. 즉 腎에서 갈무리하고 있는 精을 氣로 변화시켜 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니, 肝의 氣의 흐름은 주로 外向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肝에 病이 들면 升發과 發散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다. 하루 중 平旦은 해가 뜨는 시각으로 자연의 氣가 升發과 發散되기 시작하는 시간으로 肝의 생리기능과 유사성을 띄므로, 이 시각에 肝의 病이 상쾌해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下晡는 해가 지는 시각으로 氣가 수렴되는 시기이다. 이 시각의 氣의 흐름은 肝의 생리기능과 상반된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病이 심해짐을 느끼게 된다. 한편, 夜半은 氣를 갈무리하는 시각으로 다음날의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氣를 충전하는 시기이다. 즉 腎이 精을 갈무리하여 肝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제공하듯이, 夜半의 시간은 肝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보충하기 때문에 병이 안정되는 것이다.

2) 心病者, 日中慧, 夜半甚, 平旦靜.

인체에서 心은 혈맥을 主하는 장부로 전신에 혈액을 수송하는 기능을 한다. 즉 인간이 생존하는 동안 心은 한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는 推動작용을 行하여 인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다. 心은 五行 가운데 火에 배속되는데, 火는 炎上의 象을 가지고 있고 氣를 發散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心의 기능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루 중 가장 陽的이라고 할 수 있는 日中에 病이 상쾌해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夜半은 氣가 潛藏되는 시기로 心의 기능과 상반된 氣의 흐름을 나타내는 시기이므로, 心病의 상태가 더욱 심해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편, 平旦은 해가 뜨는 시각으로 陽氣가 升發해 올라오는 시기로서 心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病이 안정된

北京, 學苑出版社, 2001, 163~167쪽

"慧, 爽慧也. 靜, 安靜也. 平旦乃木旺之時, 平旦慧, 卽上文起于春, 起于甲乙之意也. 下晡乃金旺之時, 金克木, 故下晡甚, 卽上文甚于秋, 加于庚辛之意也. 夜半乃水旺之時, 水生木, 故夜半靜, 卽上文持于冬, 持于壬癸之意也. 此藏氣法一日之四時也. …… 日中乃火旺之時, 故日中慧, 卽起于夏, 起于丙丁也. 夜半乃水旺之時, 水克火, 故夜半甚, 卽甚于冬, 加于壬癸也. 平旦乃木旺之時, 木生火, 故平旦靜, 卽持于春, 持于甲乙也. 此藏氣法一日之四時也. ……昳, 戾也. 日昳乃午后未分, 土旺之時, 故日昳慧, 卽起于長夏, 起于戊己也. 日出乃木旺之時, 木克土, 故日出甚, 卽甚于春, 加于甲乙也. 下晡乃申酉金旺之時, 土生金, 故下晡靜. 以肝心爲例, 當日中火旺而靜, 今下晡靜者, 以明子母氣旺, 皆能靜也. 此藏氣法一日之四時也. …… 下晡, 乃金旺之時, 故下晡慧, 卽起于秋, 起于庚辛也. 日中, 乃火旺之時, 火克金, 故日中甚, 卽甚于夏, 加于丙丁也. 夜半, 乃水旺之時, 金生水, 故夜半靜, 亦子氣旺而安靜也. 此藏氣法一日之四時也. …… 夜半, 乃水旺之時, 故夜半慧, 卽起于冬, 起于壬癸也. 四季, 乃辰戌丑未, 土旺之時, 土克水, 故四季甚, 卽甚于長夏, 加于戊己也. 下晡, 乃金旺之時, 金生水, 故下晡靜, 卽持于秋, 持于庚辛也. 此藏氣法一日之四時也."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고 볼 수 있다.

3) 脾病者, 日昳慧, 日出甚, 下晡靜.

脾는 土에 배속이 되어 生長化收藏이라는 자연계의 변화 규율 가운데 化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化라는 것은 木과 火의 生長 기능이 발현되어 發散이 主를 이루면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수렴하기 편하게 정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하루의 시각에 비유하면 日中과 下晡 사이의 未時인 日昳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日昳에 脾病은 상쾌해짐을 느끼게 된다. 이에 비해 日出은 升發하는 시각으로 氣를 분산시키는 의미를 가지므로, 수렴의 전 단계에서 발산된 氣를 정리하는 化의 작용과 상반된 氣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병의 상태가 심해지는 것이다. 한편, 下晡靜에 대해서는 주석가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藏의 文例를 따른다면 "日中靜"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日中은 日出과 마찬가지로 주로 發散의 기능이 발현되는 시각으로 化의 기능이 발현되는 脾의 기능과 상충되므로 병의 상태가 안정적일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陰的인 氣의 흐름을 나타내는 下晡와 夜半이 脾病을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 주는 시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夜半의 경우는 化에서 수렴의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갈무리의 상태로 넘어가게 되므로, 脾病은 下晡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肺病者, 下晡慧, 日中甚, 夜半靜.

肺는 인체에서 肅降과 收斂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므로 五行 가운데 金에 배속이 된다. 그러므로 하루의 시각 중 金에 해당되는 下晡에 病이 상쾌해짐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비해 炎上과 發散을 주로 행하는 火에 배속이 되는 日中의 시각은 肺의 氣의 흐름과 상반되므로 병이 심해진다.

한편, 夜半靜은 脾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藏의 文例와 비교할 때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니, 本文의 文例를 따르면 "日昳甚"으로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內經』에서는 무엇 때문에 日昳을 夜半으로 바꾸어 표현하였는가하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日昳은 未時를 뜻하니 현재의 시각으로 오후 1시~3시에 해당된다. 天氣는 午時를 기점으로 陽이 극점에 도달했다가 기울기 시작한다. 그러나 天氣가 지면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간의 간격이 있어, 지면의 온도는 오후 2시 무렵, 즉 未時에 가장 높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므로 未時에 해당되는 日昳에는 아직까지 熱氣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熱氣가 영향을 미치는 日昳의 시각은 淸凉한 氣가 작용하는 金과는 상반된 상태가 되므로 병의 상태가 안정적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內經』에서는 金과 함께 陰的인 氣의 변화를 나타내는 水에 해당되는 夜半에 肺病의 상태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5) 腎病者, 夜半慧, 四季甚, 下晡靜.

腎은 인체에서 封藏을 주로 행하는 장부로 오행 중 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하루의 시각 가운데 낮에 벌어들인 氣를 갈무리하는 시각인 夜半에 병의 상태가 상쾌해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土에 배속되는 四季에는 病이 심해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水[겨울, 腎]의 갈무리 작용은 金의 肅殺之氣에 의해 필요 없는 찌꺼기를 털어 낸 뒤 행해지게 된다. 즉 木火의 기능이 발휘되어 벌어들인 氣를 金의 肅殺之氣를 통해 찌꺼기가 제거된 精華物을 저장하는 것이 水의 갈무리 기능인 것이다. 그런데 土는 만물을 융화시키는 기능이 있어 만물을 모으고 받아들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土의 기능은 활동의 결과물 가운데 精微로운 물질만 갈무리하려는 腎의 기능과 상반된 양상을 나타내므로 腎病이 四季에 심해지는 것이다.

한편,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土의 시각을 日昳이 아닌 四季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四季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木火金水의 각 끝에 해당되는 辰戌丑未를 의미한다. 四季는 火와 金사이의 土(長夏)와 마찬가지로 기운의 교체 과정에서 중간에 위치하여 두 기운을 조정하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중재하는 化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日昳은 未時를 의미하고, 四季는 辰戌丑未를 의미하여 물리적으로는 4배의 시간차이가 나게 된다. 그렇다면, 『內經』에서 腎病이 심해지는 시각을 日昳이 아닌 四季로 표현한 것은 腎病의 危重性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다른 4藏의 경우 병이 심해지는 시각을 下晡·夜半·日出·日中 등 하루의 일정한 시간으로 고정한 것에 비해, 腎病은 하루 중 어느 때에도 병이 심해질 수 있음을 나타내어, 다른 藏과 비교할 때 腎病이 치유되기 어렵고 병의 상태가 위중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下晡에 腎의 病이 안정된다고 하였는데, 下晡는 金에 해당되는 시기로 收斂과 肅殺기능을 통해 腎의 저장기능을 도와주게 되므로 병이 안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結 論

『素問·藏氣法時論』의 五藏病의 日中 間甚과 관련된 내용은 五藏病이 하루 中 시간 변화에 따라 병의 상태에 慧·甚·靜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이 문장에 대해 역대 醫家들은 대체로 五行의 관계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脾病과 肺病의 안정되는 시각에 대해서는 3가지 정도로 다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다른 장의 文例를 따라 脾病은 "日中靜"으로 肺病은 "日昳靜"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下晡[金]와 夜半[水]의 시각이 脾와 肺를 克하는 시각인 日出[木]과 日中[火]을 억제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병이 안정된다는 것이다. 셋째, 子의 氣가 왕성해짐으로 인해 母의 氣도 왕성해져 병이 안정된다는 것이다.

논자는 이 문장에 대해 五行의 속성 및 五藏의 생리기능을 근거로 한 氣의 경향성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첫째, 肝病의 경우 平旦은 升發과 發散의 특성을 가진 肝의 氣와 같은 경향성을 가지므로 상쾌해지고, 下晡는 氣가 수렴되는 시기로 氣의 흐름이 肝과 상반되기 때문에 심해진다. 한편, 夜半은 肝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보충해주는 시기이므로 병이 안정된다. 둘째, 心病의 경우 日中은 炎上과 發散을 특징으로 하는 心의 기능과 유사성을 가지므로 상쾌해지고, 夜半은 상반된 氣의 흐름을 나타내므로 심해진다. 한편, 平旦은 陽氣가 升發해 올라오는 시각으로 心의 활동을 도와주므로 병이 안정된다. 셋째, 脾病의 경우 日昳은 木火의 發散기능을 통해 분산된 氣를 수렴하기 편하게 정리해 주는 化의 기능과 유사한 氣의 속성을 가지므로 상쾌해지고, 日出은 收斂의 전 단계에서 氣를 정리하는 化의 작용과 상반된 氣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심해진다. 한편, 脾病의 안정 시각은 文例를 따른다면 日中이 되어야 하지만, 日中은 日出과 마찬가지로 化의 기능과 상반되기 때문에 부적합하고, 化의 작용과 관련이 깊은 收斂의 시기에 해당되는 下晡에 안정된다. 넷째, 폐병의 경우 下晡는 수렴을 하는 시각으로 肺의 기능과 흡사하므로 상쾌해지고, 日中은 상반된 氣의 흐름을 가지므로 심해진다. 肺病이 안정되는 시각은 文例를 따른다면 日昳이 되어야 하지만, 日昳은 未時로 地面의 온도가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熱氣를 함유하고 있어 淸凉한 金의 氣와 상반되기 때문에 부적합하고, 金과 함께 陰的인 氣의 변화를 나타내는 夜半에 안정된다. 다섯째, 腎病의 경우 夜半은 갈무리를 주로 行하는 腎의 기능과 흡사하므로 상쾌해지고, 四季는 精微로운 물질을 갈무리하는 水의 기능과 상반되게 만물을 모으고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으므로 병이 심해진다. 下晡는 收斂과 肅殺을 통해 갈무리 기능을 도와주므로 안정된다.

한편, 腎病이 甚해지는 시기를 日昳이 아닌 四季로 표현한 이유는 腎病은 다른 藏과 달리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어느 때고 병이 심해질 수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腎病의 危重性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參考文獻

1.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社, 1995
2. 丹波元簡,『素問識』, 人民衛生出版社, 1984
3.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1998
4. 朴贊國,『懸吐 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
5.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黃帝內經素問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95
6. 孫國中, 方向紅 點校,『黃帝內經素問吳注』, 學苑出版社, 2001
7. 孫國中, 方向紅 點校,『黃帝內經素問集注』, 學苑出版社, 2002
8. 孫國中, 方向紅 點校,『黃帝內經素問直解』, 學苑出版社, 2001
9. 李志庸 主編,『張景岳 醫學全書·景岳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10. 張介賓,『類經』, 人民衛生出版社, 1980
11. 朱震亨, 『丹溪醫集·丹溪心法』, 人民衛生出版社, 1993
12. 許愼,『說文解字注』, 大星文化社, 1990
13. 胡天雄,『素問補識』,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14. 洪元植,『精校 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社, 198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